

## 《夷堅志》에 나타난 豫測型 巫俗信仰 탐구

- 宋代 士人 을 중심으로 -

김 주 영\*

### <目 次>

- |             |          |
|-------------|----------|
| I. 시작하는 말   | 1. 軌革卦影  |
| II. 祠廟 신앙   | 2. 算命術   |
| 1. 祈夢       | 3. 響卜    |
| 2. 紫姑信仰과 扶乩 | 4. 拆字    |
| 3. 求籤       | 5. 相聲    |
| 4. 擲筊       | IV. 맺는 말 |
| III. 占卜術數   |          |

### I. 시작하는 말

학술계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기를 宋代는 중국문화의 절정시기로 宋代 理學의 체계화와 과학기술의 발달, 교육사업의 발전, 지식계급의 확대 등을 이룩해 내었다. 이처럼, 宋代는 중국문화의 르네상스이자 그 당시 세계에서 문명 수준이 최고인 국가로 인식되지만, 이렇게 찬란한 진보를 이룩한 宋代 사회에 대해 학술계의 일반적인 관심사는 사회 지배층의 문화, 예술 등에 편중 되어 있는 편인데, 그중에서도 宋代 민간 사회의 실제생활 면모에 대한 관심, 특히 정부나 국가의 주도가 아닌 민간인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며 생활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는 민간신앙에 대한 연구는 상

\* 경북대학교 강사

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사실상, 중국사회의 민간 신앙은 사회 지면에서 일반 민중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으면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전통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소재이다. 게다가 宋代 민간 신앙이 결코 주변국가에 비해 손색이 없었으며,<sup>1)</sup> 설사 비슷한 시기의 遼夏金 이전 시기인 唐五代와 비교해서도 뒤쳐지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더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겠다.

실제로, 당시에 존재했던 卜者의 수만 보더라도 그 당시 이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무척 많음을 알 수 있다. 왕안석《汴說》을 살펴보면 그 당시 이방면에 종사하는 인구수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그 당시 개봉의 인구가 백오십만정도이니<sup>2)</sup> 그때 만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 卜者가 있다면 참으로 상당히 놀랍다.<sup>3)</sup> 그 외에도 《古今圖書集成·博物匯編·藝術典》에도 卜筮, 星命, 相術, 術數 각 부문의 유명한 사람의 열전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唐代人으로서 수록된 사람은 겨우 20인인데 비해 宋代人은 39인에 달하니 이것 역시 宋代 민간 신앙이 唐代보다 더욱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 내었음을 알 수 있는 예이기도 하다.<sup>4)</sup>

하지만, 宋代 민간신앙의 성행에 비해 그에 관한 專文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적으로 많지 않으며<sup>5)</sup> 게다가 연구의 주요 대상은 城隍神, 紫姑神, 文昌, 五通神 정도로 다양한 접근 방법이 아쉽다 하겠다. 사실상, 宋代 민간신앙연구 뿐만 아니라 전통 중국인의 신앙형태에 관해서는 儒佛道 三教에 중점을 둔 전통연구 방법이 주류를 이루며 그것도 아니면 표면적으

- 1) 朱瑞熙, 《遼宋西夏金社會生活史》(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8.8, 255쪽.
- 2) 周寶珠, 《宋代東京研究》, 劉黎明, 《宋代民間巫俗研究》(成都: 巴蜀書社), 2004.3, 5쪽에서 재인용.
- 3) 卜者抵今爲尤蕃, 舉天下而籍之, 以是自名者, 蓋數萬不啻, 而汴不與焉, 舉汴而籍之, 蓋亦以萬計. 王安石, 《王臨川全集》(臺北: 世界書局), 1977, 443쪽.
- 4) 楊曉紅, 《宋代占卜與宋代社會》, 《四川師範大學學報社科版》29:3, 2002.5, 94쪽.
- 5) 송대의 민간 신앙을 연구한 대표적 저서로는 (美)韓森著, 包偉民譯 《變遷之神-南宋時期的民間信仰》(杭州: 浙江人民出版社), 1999과 劉黎明的 《宋代民間巫俗研究》 정도라 말할 수 있다.

로는 민간 신앙이라고 타이틀을 내 건채 기본적으로 제도화 종교의 시각으로 접근하여 일정한 규모와 조직을 갖춘 비밀종교 쪽으로 연구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민간신앙이라 함은 비자연적 존재에 대한 신앙으로 여기서의 ‘민간’이라는 뜻은 官方의 주도 아래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官方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默許되고 있는 문화 형태를 가리킨다. 즉, 민중의 일상적인 풍속습관 아래의 종교적 전통으로 단체 생활이 전승되어가면서 이루어진 종교규범과 사회 활동을 말함인데, 본질상 상고시대의 원시종교형태를 전승받은 것으로 귀신숭배와 무속활동에 편중되어 있으며 신령과 인간 사이에서 진행되는 영감의 교류와 신화의 전승을 구축한 것으로 고정된 조직과 교리가 있는 민간종교와는 구별이 된다.<sup>6)</sup>

민간신앙의 주요 내용은 만물유령과 영혼불멸의 관념으로, 구체적으로는 자연물, 자연력, 귀신과 조상 숭배, 그리고 초능력 인물 숭배등을 포함하는데, 그러한 숭배대상에 대해 인간들은 흔히 미신이라고 하는 무속활동을 통해 다방면의 접촉을 꾀한다. 민간에서 성행한 무속은 대략 祈求, 驅除, 豫測, 招魂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sup>7)</sup> 어떤 무속행위를 통하든지 간에 인간이 신을 주축으로 하는 방대한 숭배 집단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목적은 바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豫測類 巫俗行爲를 통해 나타나는 宋代 민간신앙의 양상, 특히 士人계층의 신앙형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를 통해 당시 宋代 士人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신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으며 거기서 나타나는 당시 사회적 문화적 특색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사실상, 민간에서 성행하고 있는 무속행위를 전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간인

6) 鄭志明, <關於民間信仰·民間宗教與新興宗教之我見>, 《文史哲》, 2006.1, 10-11쪽.

7) 巫術의 종류에 대해 巫術의 범위, 작용, 성질등 다양한 각도로 분류를 시도하는데 영국의 인류학자 James George Frazer의 분류방법을 대표로 한 서양 학자의 분류방법에서 목적 또는 직업별로 분류한 중국 학자들의 분류까지 분류 방법은 다양하다. 巫術의 분류에 대해서는 劉黎明, 앞의 책, 15-19쪽 참고.

으로서의 士人계층에 대한 연구 외에도 사회 밑층의 민중들을 주체로 한 민간신앙 양상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나, 그 당시 민간신앙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과 그 한계성으로 인해 하층 민중의 신앙생활을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렵다 하겠다. 그리고 당시 생활상을 다방면으로 기록하여 그 당시 사회상을 全面的으로 조명할 수 있는 문헌이라 하더라도 기록자의 신분적 특성과 이야기의 수집과정에 나타나는 계층의 편중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자신이 속한 어느 특정 계층의 문화를 다른 계층의 문화보다 더욱 상세하고도 풍부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특히 豫測型 巫術에 있어서는 지식계층들의 학문적 접근이 다른 유형의 巫術에서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고, 심지어 巫俗人이나 점쟁이를 매개로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巫術을 펼치고 연구 개발하는 주체로도 맹활약을 하고 있어 이 부류의 이야기에서 士인들의 역할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텍스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와 예측형 巫術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宋代 士인들의 민간신앙 형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독서계층이라 여겨지는 士人들은 관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유학을 신봉하며 “不語怪力亂神”을 강조한다. 특히 그들은 지방관이 되어서는 官方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 지방의 풍속을 지키기 위해 淫祠들을 철폐하며 巫俗人들을 탄압하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삼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개인의 부귀공명의 예측을 위해서는 神明에 대한 숭배를 마다하지 않았고 定命을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神明과의 交流를 가능하게 해주는 巫術에 열중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 또한 이렇진대 자연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고대에 지식수준조차 뒤떨어진 기층 민중들이 민간에서 성행하고 있던 전통 신앙에 대해 얼마나 의존했을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남송 洪邁<sup>8)</sup>가 수집하여 편찬한 志怪小說集 《夷堅志》를 텍스트로 삼았는데<sup>9)</sup> 이 책은 宋代 志怪筆記로는 최대의 분량으로 陸心源의 序文에서 나타나듯 小說之淵海라는 칭호를 듣고 있는 宋代 필기소설의 대작으로 士人들의 逸話遺聞은 물론 文獻掌故, 醫藥技藝, 地方風俗 등 대단히 광범위한 내용을 두루 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귀신과 신선의 變怪譏應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야기의 荒誕怪異 함으로 미신적 색채가 강렬하다. 그 외에도 당시의 사회문화상을 직간접으로 잘 반영하여 地方志와 더불어 당시의 시대상을 투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夷堅志》에 수록되어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앞날의 길흉여부에 대한 士人들의 사고 방식과 그들의 민간 신앙 행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夷堅志》가 투영하고 있는 남송 민간 신앙의 특색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 II. 祠廟신앙

신령이란 인간에게 복을 주거나 재앙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 단순히 미래의 일을 예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을 주관하며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서양세계와는 달리 단일신을 숭배하지 않고 여러 신령들을 숭상하고

8) 洪邁(1123~1202)의 자는 景盧이고, 호는 容齋 또는 野處이다. 饒州鄱陽(지금의 江西 波陽) 사람이다. 紹興15년 博學宏詞科에 응시하여 同進士로 兩浙轉運司를 제수받았다. 中書舍人兼侍讀, 直學士院 등을 역임하였는데 嘉泰2年(1202)에 端明殿學士를 지내다가 죽었다. 향년 80세로 시호는 文敏이며 그의 傳이 《宋史》에 있다. 생전에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夷堅志》외에도 《節齋治通鑒》, 《經子法語》, 《容齋隨筆》, 《唐人絕句詩集》 등이 있다.

9) 《夷堅志》는 원래 총 420권으로 약 5600개의 이야기를 수록하였지만, 현재 180권과 산일된 이야기를 따로 모아 만든 27권만이 남아 있다. 본고에서는 臺灣 明文書局本을 텍스트의 판본으로 선정하였는데 이 판본은 1981년 涵芬樓本을 底本으로 하여 거기에서 校訂을 거친 뒤 刊印한 中華書局本의 복사본이다.

있는데, 그 여러 신들은 중국인의 사고 체계 속에서 점조직으로 산만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방대하지만 위계서열이 있는 조직집단을 이루고 있다. 그 조직 속에는 바람과 비 같은 자연의 힘과 관련된 신들도 있으며, 직능적인 기술을 주재하는 신, 특정한 지역에 국한된 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로서의 帝, 天 등도 있으며, 그 외에도 죽은 사람의 혼령인 鬼란 존재도 있어 그 거대하고도 혼잡한 조직을 함께 구성하고 있다.<sup>10)</sup> 하지만 인간이 숭배하는 대상이 神이든 鬼이든지 간에 그것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존재하면서 사람들이 찾으면 이에 감응하고 교류하면서 인간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夷堅志》에 나타나는 신과 인간의 교류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인가? 필자가 보기에는 민간신앙의 진행 장소인 祠廟<sup>11)</sup>에서 행해지는 각종 종교적 활동들인데 그 중에서 祈夢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 1. 祈夢

전통 중국 사회에서는 인간의 富貴功名은 이미 정해졌다고 믿었다. 그

10) 본래 자연신을 지칭하는 개념인 ‘神’은 죽은 사람의 혼령을 가리키는 ‘鬼’와 대비되면서 이후 음양의 우주론과 접목되어 善과 惡, 尊과 卑, 貴와 賤의 개념으로 전이되었다. 神과 鬼의 개념에 대해서는 袁陽, 박미라역, 《중국의 종교문화》(서울: 길, 2000, 33-34쪽 및 박지현, <중국 민간 신앙 속에서 神 되기-《太平廣記》神部 이야기에 나타나는 人物神 분석>, 《中國學報》51, 2005.6, 135-136쪽 참조.

11) 중국에 있어서 祠廟는 불교 寺院과 도교 宮觀의 제3종 종교 예배 장소를 지칭하는 말로 보인다. 小島毅氏의 견해에 따르면 ‘祠’라는 것은 주로 생전에 공적이 있는 인물을 제사 드리는 장소를 지칭하고, ‘廟’는 사람이외의 사물, 혹은 사후에야 영험을 드러낸 인물을 제사 드리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처럼 확실한 구분에 의해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中村治兵衛氏가 《宋朝の巫の特徵》에서 밝힌 것처럼, 《宋會要輯稿》에 수록된 자료를 근거하여 조사하면, 祠와 廟를 구별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으며 어떤 경우는 원래는 祠였던 것이 정부에서 廟額을 하사받고 廟로 개명한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金相範, <唐代民間祠廟信仰 연구의 回顧와 展望>, 《中國史研究》14, 2001.8, 209쪽.

래서 과거시험 전후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급제여부를 미리 알아 보려고 노력하였다. 과거제도가 정비를 하던 唐代부터 지식인들에게 있어 진사 급제는 그들이 오매불망으로 갈구하는 목표로 그들은 절박하고 조급한 심정으로 자신에게 정해진 부귀공명을 占卜術數를 통해 미리 예측하려고 했다. 그러나 宋代 사람들은 唐代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정해진 富貴功名을 예측하기 위해 神明에게 꿈을 통해 예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빌기 시작하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통일된 행동 양상을 드러낸다. 그것은 바로 주인공이 먼저 영험하기로 소문난 祠廟에 가서 신명에게 기도드리며 구체적으로 자신과 신명이 교류할 매개로 꿈을 지적하면서 그 꿈에서 자신이 원하는 미래에 관한 정보를 예시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 후 꿈에 과연 신명의 계시가 나타나고 꿈을 청한 사람은 그 예시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宋代 사람들의 꿈을 기원하는 이와 같은 모식은 꿈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에 기원하는 것으로, 예전부터 사람들은 꿈을 신령과 인간이 교류하는 방법으로 여겼기에, 사람들은 어떤 의혹이 있거나 또는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있으면 주동적으로 천지신명께 기도하여 꿈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길흉을 먼저 알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문헌을 살펴보면, 길몽을 기도하는 것은 연원이 오래된 것으로<sup>12)</sup> 비단 宋代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宋 이전의 사람들이 吉夢을 통해 알고자 하는 것은 대개 國家大事나 皇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의 길흉을 알고자 하는 宋代와는 다른 성향을 보여준다.

그에 비해 唐人들이 자신의 부귀공명을 미리 알기 위해 자주 사용했던 방법은 占을 보는 것인데, 宋代 사람들처럼 일부러 祠廟에 가서 신명에게 꿈을 통해 자신의 앞날을 예시해 주기를 기도하는 예는 적은 편이다.

《夷堅志》에서 보이는 많은 祠廟 중에서 특히, 꿈을 기원하는 민중들

12) 《周禮·春官》에 “季冬聘王吉夢，獻吉夢於王” 라는 문구로 보아 길몽을 기원하는 것은 예전부터 일종의 종교적 의식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劉文英, 《夢的迷信與夢的探索》,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0.1, 134 쪽

의 요청에 부응하여 자신의 탁월한 영험을 드러낸 祠廟로 梨山廟를 손꼽을 수 있다. 그곳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서 支戊 권6 <黃師憲禱梨山>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소흥 무오년, 황사헌이 보전에서 성시를 치러 올라갔다 처음에 같은 마을에 사는 진응구와 같이 가기로 약속했는데 아직 처리하지 못한 일이 있어 몇 일후에 길을 나섰다. 건안을 지나 이산 이후묘에 가서 길몽을 청했다. 꿈에서 신이 말하길: “내 말 필요 없이 진준경을 만나라. 그가 말한 것이 옳은 것이다.” 황씨는 입안에 도착하여 비로소 진씨와 만나 그의 앞날의 득실을 물었다. 진씨는 일찍이 그 사당에 간 적도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사양했다. 황씨는 그를 조르면서 뉘달하니 진씨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사헌이가 1등하고 준경이가 그 다음 순위이면 족하다”라고 했다. 황씨는 꿈과 맞음을 좋아하면서 그 일을 알렸다. 합격자 발표가 나니 과연 그 말 대로였다.(紹興戊午, 黃師憲自莆田赴省試. 初與里中陳應求約同行, 以事未辦集, 後數日乃登途, 過建安, 詣梨山李侯廟求夢, 夢神告曰: “不必吾有言, 只見陳俊卿, 他所說者是已.” 黃至臨安, 方與陳會, 即詢其得失. 陳蓋未嘗至彼廟也, 辭以不能辭. 黃逼之不已, 陳怒, 大聲咄之曰: “師憲做第一人, 俊卿居其次, 足矣.” 黃喜其與夢合, 乃以告之. 暨揭榜, 如其說.)

이 이야기와 《太平廣記》 권315에 보이는 <梨山廟>와 비교하면 각 이야기의 주인공들의 기본 심리가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祠廟에 가서 미래의 길흉화복을 점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唐五代를 거쳐 宋代에 이르러 더욱 분명해졌기 때문이라 하겠다. 《夷堅志》의 주인공 黃氏가 신에게 요구한 것은 그가 급제하도록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고 단지 신에게 자신의 앞날을 미리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것이었다. 그에 비해 《太平廣記》의 吳新이 사묘에 들러 신에게 바란 것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신이 자신을 도와 전쟁에서 이기도록 기도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신을 대하는 심리가 다름을 알 수 있다.

丁志 권12 <李衛公廟> 역시 이런 이야기의 기본 구조를 잘 따르고 있다.

온주성 동쪽에 당위국공 이정(李衡)의 祠廟가 있는데 온주 백성들이 자주 가서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꿈을 내려줄 것을 바라는데 영험을 드러내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소흥 32년 군의 선비인 자가 蘊之인 목대문이 轉運司의 추천을 받았는데 그 祠廟에 들러 득실여부를 물었다. 꿈에 자색 적삼을 입은 사람이 밭 가운데에 서 있고 土人 수 천 명이 관 하나를 들고 지나가면서 고개를 돌려 자신을 보았다. 다음 날 아침 동사생인 반성에게 물어 보니 성이 말하길 “자네는 마땅히 장원 급제할거네. 棺자는 木자와 官자로 이루어지니 자네가 벼슬을 얻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네. 수 천 명의 사람이 관을 들고 가는 것은 그들 모두가 자네 아래라는 것을 설명하네. 과연 그 말 대로였다. (溫州城東有唐李衡公廟，州人每精禱祈夢，無不應者。紹興三十二年，郡土木待問蘊之得漕薦，謁廟叩得失。夢著紫衫獨立於田間，土子數千輩擁一棺馳去，皆回首視蘊之。明旦，以語同舍生潘禔。禔解曰：“君當魁天下，棺之字從木從官，君得官無疑。數千輩舁之，明皆出君下也。”果如其言。)

丙志 권12의 <吳德充> 이야기를 살펴보자.

오공재, 자는 덕충(德充)으로 弋陽人이다. 태학에 들어와 나이 오십이 되어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이상공묘에서 꿈으로 결정하려는데 꿈에서 동자가 말하길: “그대는 내년 운세가 매우 좋으니 이때부터 운수형통해질 것이다. 오씨가 그것을 믿고 노력하며 남아 도모하였다. 그 다음해에 태학 상서에 뽑혔지만 스스로 나이가 많음을 고려하여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였다. 또 꿈에서 말하길: “내년에 급제할 것이니 돌아갈 필요가 없다.” 다음해 과연 가왕방에 이름이 올랐다. (吳公才，字德充，弋陽人。入太學，年至五十無所成，欲罷學歸，決夢於二相公廟，夢童子告曰：“君明年甚佳，自此泰矣。”吳信之，勉爲留計。明年，上舍中選，自願年益高，復起歸思，又夢曰：“即登科矣，無庸歸。”明年，果然嘉王榜擢第。)

여기서 열거한 이 몇 가지 이야기 외에도 수많은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祠廟에 들러 곧 치를 과거의 득실을 물어 보는데, 그들 역시 신과 접촉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꿈이었으며 과연 그들의 바람대로 자신의 과거

득실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꿈을 꾸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 이 부류 이야기의 기본적 구조이다. 이를 통해서 宋人들이 祠廟에 가서 신의 예시를 받기를 원하는 풍조가 당시 사회에서 매우 성행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支庚 권2 <浮梁二士>의 “선비들이 과거를 볼 때는 龜卜이나 筮占 같은 점술 외에 대부분이 꿈을 통해 예측한다. 어떤 이는 신기한 꿈에 가탁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도 있을 정도였다. 만약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면 믿을 만 하다고 말할 수 있다.(士人應科舉, 卜筮之外, 多求諸夢寐, 至有假託神奇以自欺者, 若出於它人之口, 則謂堪信)”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宋代인들이 祠廟에서 했던 활동이 비록 특별한 일의 길흉화복을 짐치는 것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그들이 특별히 祠廟에 가서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했던 것은 분명하고, 그 뿐만 아니라 祠廟에서 이루어진 길몽을 기도하는 의식은 이미 형식화, 제도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宋代 士人들의 功名을 예시해주는 것으로 영험이 난 祠廟로는 袁州宜春仰山の 二王廟, 邵武의 廣佑廟, 開封의 二相公廟 등이 있는데 그곳을 배경으로 신과의 접촉을 통해 앞날의 길흉을 알고자 하는 이야기가 《夷堅志》 중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 2. 紫姑信仰과 扶乩

《夷堅志》중 어떤 이야기는 기도 의식을 통해 神明이 강림되고, 그 神明에게 길흉화복을 물어 보는 것인데 그렇게 청해진 神明들은 대개가 거대한 神 조직에서 높은 서열에 오르지 못한 신이거나 혹은 妖魅나 邪神에 속하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방면에서 그들의 능력은 正神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다. 다시 말해서 善惡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 鬼와 神은 미래의 일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능력에 있어서 그들의 능력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夷堅志》에서 인간의 요청에 의해 강림한 귀신 중 宋代를 대표할 만한 神明으로는 紫姑神이 있는데, 紫姑神에 대한

기록은 《夷堅志》뿐만 아니라 宋代 文豪들의 筆記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紫姑神에 관한 기록은 劉敬叔의 《異苑》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이후, 《荊楚歲時記》의 기록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둘 문헌의 기록을 살펴 보면, 당시의 紫姑神에 대한 인식은 紫姑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언급 보다는 紫姑神을 영접하는 형식과 紫姑의 神性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기록하는데 편중하고 있다. 어쨌든, 南朝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紫姑는 그 당시부터 蠶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의 길흉을 알려주는 신으로 활약하고 있었는데 宋代에 이르면 그녀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즉 기존의 紫姑神 이미지를 보존함은 물론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이 강화되고 게다가 문화적 소양까지 갖춘 신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夷堅志》외에도 宋代 문인들의 필기에서도 紫姑神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당시에 紫姑를 믿는 풍조가 매우 성행하였으며 문인들이 紫姑神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sup>13)</sup> 본래 紫姑를 불러오는 방법으로는 그녀의 모습을 본뜬 인형을 사용하였는데 사람들이 그녀가 죽은 측간에서 그 인형을 들고 제의를 행하면 그녀는 그것을 통해 강림하여 춤을 추거나 잠을 잠으로써 점괘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宋代에 오면 간단한 동작을 통해 어떤 일의 可否를 표명하던 방식에서 발전하여 문자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화된 형태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扶乩 혹은 扶箕라 불리는 전통적 점복술과 결합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이 점복술은 원시민족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삼태기의 動靜이나 모래판이나 종이와 같은 글자판에 쓰여지는 그림이나 글자를 통해 점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sup>14)</sup> 이 巫術 행위는

13) 宋 蘇軾 <子姑神記>, <天篆記>, <人物雜記>와 沈括 《夢溪筆談》 등에서 紫姑神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미래의 禍福을 扶箕라는 형식을 통해 알려주는 紫姑에 대해 그들의 직접적 체험과 목격담을 상세한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그들은 무엇보다 紫姑의 문화적 소양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는데 이것은 그들의 문인적 취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여하튼 紫姑신앙은 宋代에 또 다른 형태로 발전된 모습을 보이며 대중들의 이목을 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六朝시기에 이미 紫姑信仰 과는 관계없이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紫姑를 강림하게 하는 儀式 역시 부기를 통해 이루어지자 紫姑信仰의 확산과 함께 紫姑는 부기의 대표 코드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기를 사용하여 강림하는 신들을 일반적으로 紫姑라고 칭하는 등 紫姑라는 명칭이 부기라는 특수한 무속 방법과도 긴밀히 결합하여 부기의식을 통해 나타나는 신은 모두 紫姑라는 인식까지 만들어 놓기도 하였다.

紫姑神이 어떻게 부기를 통해 강림하는 것인지 三志壬 권3 <沈承務紫姑>의 기록을 살펴보면 대략 알 수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 “紫姑는 신선의 이름으로 옛날에는 없었으나 당에 이르러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삼태기에 붓을 쫓고 두 사람이 잡고 있으면 모래판에 글자가 써진다.(紫姑仙之名, 古所未有, 至唐乃稍見之也. 世但以箕插筆, 使兩人扶之, 或書字于沙中, 不過如是)”라고 했듯이 삼태기와 붓을 통해 神意를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宋代에 들어와 더욱 발전을 이루어 낸 紫姑神 신앙은 점점 士人 계층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 시키고 있었는데, 특히 그들 심층의 초초함과 걱정거리를 해소해 주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夷堅志》 <方彞招紫姑>를 보면 紫姑神과 扶箕를 통해 士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과거와 관계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莆田에 자가 차운인 방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흥 정사년 가을에 향시를 치러 가려고 하였다. 평상시에 紫姑神을 부를 수 있었는데 이에 시험 문제를 물으려 하였다. 紫姑神이 가르쳐 줄려고 하지 않으며 “친기는 누설하면 안된다.”라고 말하였다. 방저는 다시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며 몇 번이나 기도하면서 가르침을 청하니 이에 신이 “중화” 두 글자를 적었다. 방저가 그 당시 나이가 18세로 사부를 연습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天子建中和之極’, ‘致中和天地位’, ‘以禮樂教中和’, ‘中和在哲民情’ 같은 제목의 글을

14) 許地山, 《扶箕迷信的研究》(北京 商務印書館, 1999, 7 쪽)

찾았는데 대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모두 미리 글을 지어 준비하였다. 그해 시험에 참가한 學子가 많아 시험장을 두 곳으로 나누어 쳤는데 부를 짓는 시험 앞 제목이 ‘中興日月可冀’, 뒤에 치러지는 시험 제목이 ‘和戎國之福’이었는데 그때야 비로서 신령이 써 준 ‘中和’ 글자의 의미를 깨달았다. 방지는 앞 제목의 부를 지었는데 합격을 하였다.(莆田方翥次雲, 紹興丁巳秋, 將赴鄉學. 常日能邀致紫姑神, 於是以前題目爲問. 神不肯告, 曰: “天機不可泄.” 又炷香酌酒, 禱請數四, 乃書“中和”二字. 翥時方十八歲, 習詞賦, 遂遍行搜索, 如“天子建中和之極”, “致中和天地位”, “以禮樂教中和”, “中和在哲民情”, 如此之類, 凡可作題者, 悉預爲之. 是歲以學子多, 分爲兩場. 其賦作前題曰: “中興日月可冀”, 後題曰: “和戎國之福”, 始悟所告. 翥試前賦 中魁選.)

위 이야기의 내용처럼 士人들은 신령들이 알려 준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 신념대로 시험을 준비한다. 紫姑神이 천기 누설을 이유로 발설을 거부해도 끝끝내 정보를 깨내는 것은 정해진 운명은 바뀌지지 않는다는 사고로 그것은 운명에 대한 신앙과도 같은 확신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士人들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 방지처럼 운명에 관계된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있는 존재를 숭배하며 그를 통해 미래에 펼쳐질 미지의 일의 우위권을 장악하고자 힘쓰는 것이다.

이처럼 宋代에 들어와 士人들과 긴밀한 유착관계를 가지게 된 紫姑神은 평소 士人들이 염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의 벼슬길과 관계된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 등 그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눈부신 활약을 펼친다. 위의 예처럼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 주는 것 외에도 紫姑神은 시험을 친 士인들이 궁금해 하는 응시 결과나 부임지를 미리 알려주는 식으로 士인들의 가슴속의 궁금증을 해결해 줘 더욱 더 그들의 환영을 받기도 하였다.

紫姑神의 활약상을 담은 또 다른 이야기인 支乙 권2 <吳虎臣卜夢> 이야기를 살펴 보자. 이 이야기에서 江西의 名士인 吳虎臣은 자신의 시험 결과를 미리 알고 仰山에 가서 꿈을 청했는데 그 날 밤에 붉은 옷소매의 여자가 꿈에 나타나 응시 결과를 알려준다. 그는 평소 紫姑神을 섬겼는데 동향인 吳仲權을 위해 扶箕로 그의 벼슬길을 짐쳐준다. 부기를 한

결과 ‘龍’과 ‘羊’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과연 동향인 오중권은 龍陽縣丞으로 임명된다.<sup>15)</sup>

이 뿐만 아니라 宋代에 들어와서는 紫姑神의 이미지가 더욱 복잡해지고 많은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사대부 계층과 더욱 밀착된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단순히 몸의 동작으로 일의 길흉여부를 알려주던 원시적 형태에서 벗어나 이제는 문자 등을 이용한 보다 구체적인 진술로 미래의 화복을 예언하는 형태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풍부한 문학 재능까지 발휘하는 여신이 되어버린다. 이 당시 紫姑는 더 이상 꺾박받아 죽은 측간의 신이 아닌 문학적 재능을 가진 귀품있는 모습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支景 권6 <西安紫姑>에서 沈延年이 불러온 紫姑神은 이러한 이미지의 전형으로서 그녀는 미래의 길흉을 정확히 예측할 뿐 아니라 특히 문장을 잘 짓는데 문장 풍격이 청신하고 구상력이 우수하였다. 하루는 통판이 개최한 연회에서 紫姑神은 자신의 글재주를 시험하려는 周權의 주문대로 <瑞鶴仙>을 詞牌로 하고 紅牡丹을 제목으로 삼아 檢자를 운으로 하여 그 즉시 사를 지어 그녀의 뛰어난 글재주를 선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紫姑神의 변해버린 이미지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宋代에 들어와 紫姑神 신앙의 확대와 더불어 紫姑神의 이미지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변화를 일으키고 그 외에도 부기를 통해 강림하는 신령들은 紫姑神이라 칭하는 경우도 생긴다. 실제로, 부기는 紫姑神에 국한된 무속 행위가 아니었는데, 宋代 승려들도 신령을 부르기 위해서 부기를 사용하였다.<sup>16)</sup>

15) 吳虎臣曾博聞強識，知名江西。爲學子曰，謁夢仰山，欲知科第遲速。其夜，夢紅衫女子執板而歌，覺而不能省意，但記一句曰：“尋春不是探花郎。”是後竟不第，而以獻書得官。吳奉紫姑神甚謹，每言事多驗。邑人吳仲權將調官，請扣所向，箕筭既具，但畫龍與羊各數四。虎臣曰：“龍者，君象。羊者，仕塗祿料也。子必面君登朝矣”…… 仲權私謂辰未年或可奮發，及赴部，乃注龍陽丞。

16) 載羽，〈浣州集〉권 에 보면 “定海寒食西湖，憶盧玉堂葬西湖之上，近傳有僧請大仙，降者是其筆” 문구가 나오는데 이로 보건대 당시 신명을 부르는 수단

그리고 설령 紫姑神을 강림시키기 위해 기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강림한 신이 반드시 紫姑神이라는 법은 없다. 예를 들어 《夷堅志》 支志乙 권8 <徐南陵請大仙>에서 부기로 강림한 신령은 張紫微라고 자칭하는 신령이었고, 支志庚 권2 <蓬瀛真人>의 “善邀紫姑 稍暇 則焚香致請 來者多女仙 或自稱蓬瀛真人”의 문구와 같이 紫姑神을 강림시키려 했지만 실제로 강림한 것은 자칭 蓬瀛真人이라고 하는 돼지가 변한 요괴일 수도 있는 것이다.

### 3. 求籤

《夷堅志》 丙志 권9 <上竺觀音>에 보면 침을 뽑는 행동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비록 이 이야기는 신령에게 길몽으로 앞날의 길흉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지만 꿈에서 籤을 골라 운세를 보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은 筮占에서 발전해 온 점술형식으로 흔히 祠廟에 준비되어진 대나무 침으로 길흉을 점보는 것이다. 容肇祖 <占卜的源流>에 의하면 침시는 아마도 오대말기에 출현하여, 宋代에 이르러 상당히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sup>17)</sup> 침은 일반적으로 대나무나 나무를 깎아 만든 긴 조각인데, 윗면에는 여러 가지 글씨가 쓰여 있으며 그것으로 길흉을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침은 통 안에 두었는데 길흉을 판단하는 사람은 먼저 길흉을 묻은 뒤 통을 흔들어 침한 개를 뽑는다. 그때 길흉을 묻는 방법으로는 배교를 사용하기도 한다. 위의 이야기 외에도 支志戊 권10 <金谷戶部符>, 三壬 권3 <建昌大寺塔> 등에도 구침을 통해 신과의 교류를 진행하는 모습이 보인다.

으로 부기를 사용했으며 紫姑神 만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의식은 아님을 알 수 있다.

17) 容肇祖, <占卜的源流>, 《歷史語言研究所集刊》1, 1928, 85-86쪽.

## 4. 擲筊

이 術數가 언제 출현한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梁宗懌 《荊楚歲時記》에 의하면 육조시기에 이미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8)</sup> 그 외에도 唐 한유의 <謁衡嶽廟>라는 시에서 “손으로 배교를 잡고 던지도록 이끄네(手持校杯筊導我擲)”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杯筊는 祠廟 중에서 던지면서 신령의 뜻을 타진하는 수단으로 쓰였으며 대개가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의 길흉 여부를 묻는 방편으로 사용되었다. 배교는 두 개의 민물조개의 껍질을 땅 위에 떨어뜨린 후에 그것이 뒤집어졌는지 아니면 엎어졌는지로 판단하는데, 만약 하나는 엎어지고 또 다른 하나는 뒤집어졌다면 길한 것이고, 그와 반대로 전부 엎어지거나 전부 뒤집어졌을 경우에는 흉한 것이다. 길한 경우에는 籤을 뽑을 수 있지만, 흉한 경우에는 다시 반복해야만 한다.

《夷堅志》중 丁志 권2 <富池廟>, 권5 <威懷廟神>이야기가 이 점술로 운명을 알아보고 있는 경우인데 그 중 <威懷廟神>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 建陽縣 舉子 陳升之는 경제적인 요인으로 鄉舉 응시 여부를 고민하던 차에 威懷廟에 들러 신의 뜻을 물어 본다. 하지만 배교를 연속 3번 던졌으나 모두 불길한 점괘가 나왔다. 그래서 그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지 않아야 된다고 여긴다. 얼마 후 자칭 威懷廟의 신이라는 신령이 그에 꿈에 나타나 사죄를 하면서 말하길 자신이 연회 참가하러 간 사이 자신의 부인이 실수하여 틀린 점괘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진승지는 다시 그곳에 들러 참배하면서 점괘를 물었는데 모두 길하였다. 그 후 그는 과연 갑과에 합격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신에게 점술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알아내는 단순한 구조에서 탈피해서 약간의 에피소드를 곁들여 재미를 증폭시키고 있는데 이 이야기로 독자들은 신들의 세계 역시 인간들의 세계와 같으며 그들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18) “秋社，擬教於神，以古來歲豐儉”의 注文에 “教以桐爲之，形如小蛤，言教，教令也。其擲法以半俯半仰爲吉者也。”라고 되어 있다.

느끼고 이로써 신들의 세계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되며 결과적으로 인간과 신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든다.

《夷堅志》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몇 가지 행위 외에도 앞날의 길흉을 알 목적으로 신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특별한 종교적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기에 다음 章節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 Ⅲ. 占卜術數

占卜術數는 인간이 신의 뜻을 알 수 있는 무호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중국에서의 술수 역사는 오래되었다. 직관적이고 단조롭고 정교하지 못한 唐五代의 점복술<sup>19)</sup>에 비해 宋代에 들어와서는 비교적 새롭고 다양한 術數 등이 생겨났는데 《夷堅志》에 나오는 占卜을 보아도 그러한 시대적 특징은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宋代 지식인들이 점술을 통해 자신의 부귀공명을 예측하려는 심리태도는 그 전대 사람들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주동적이다.

宋代는 오랫동안 민간에서 유행했던 기존의 술수들이 지속적으로 변성하고 있던 상황에서 새로운 술법들이 만들어지고 성행하였다. 전통적으로 일정한 시장을 가지고 있던 筮占, 相術, 風水외에 아래에서 소개할 軌革卦 影같은 술수가 새로 생겨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宋代에 들어와 특별히 볼 수 있거나, 아니면 宋代에 들어와 특별히 성행 또는 신속하게 발전하여 그 당시 사회 문화적 특징을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술수를 중점적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19) 黃正建, 《敦煌占卜文書與唐五代占卜研究》(北京: 學苑出版社, 2001.5, 187쪽.

## 1. 軌革卦影

《夷堅志》에 나타나는 각종 占卜 중, 宋代 를 대표할 수 있는 독특한 술수로 軌革卦影을 뽑을 수 있다. 이 術數는 각종 술수의 특징을 모은 시대적 산물로, 사람의 생년월일에 맞추어 계산하는 술수로 폐효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사람의 운명을 그려내는 것이다. 《夷堅志》중 10편의 이야기가 이 술수로 정해진 운명을 드러내고 있는데, 蘇軾의 《東坡志林》 권3 <費孝先卦影>의 기록에 따르면 이 술수는 北宋 仁宗年間 四川 青城山의 한 노인이 費孝先에게 易術과 軌革卦影을 전수하였다고 나와 있다.<sup>20)</sup>

卦影은 그림으로 길흉화복을 암시 하는 것이고 軌革은 사람의 사주팔자를 폐로 추언하여 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림으로 卦象을 표현해 내는 것이다. 이때 종종 시를 곁들여 卦語를 설명하기도 한다. 즉, 術士의 길흉에 대한 예측이 그림과 讖語 중에 곁들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팔자를 폐로 추언한 뒤 그 폐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두 가지 진행 방식으로 팔자를 계산하는 법과도 다르고 易卦 와도 같지 않은 한 마디로 말해 四柱八字, 易術, 圖讖이 망라된 술수라 할 수 있다.<sup>21)</sup> 이 術數의 전

20) <費孝先卦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화 2년 성도에 비효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산에 처음 왔다. 그가 말하길 근간에 청성산에 유람하면서 노인이 있는 마을을 방문하였는데 죽상 하나를 망가트리 버렸다. 효선이 불민함을 사죄하면서 배상하려고 하자 노인이 웃으면서 “죽상 아래의 글자를 보시오”라고 했다. 죽상 아래의 글자는 “이 죽상은 모년 모월 모일에 비효선에게 망가트리 질것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노인은 “이루어짐과 부서뜨려짐이 스스로 그 정해진 운명이 있는데 그대가 무엇으로 보상한다 말어요?” 라고 하였다. 효선이 기이함을 알고는 남아서 스승으로 모셨다. 노인이 《易》과 軌革卦影을 전수하였는데 그전에는 이 술법을 배운 자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후 5,6년 후 효선은 이것으로 부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죽었다. (至和二年, 成都人有費孝先者, 始來眉山. 云近遊青城山, 訪老人村, 壞其一竹床. 孝先謝不敏, 且欲償其值. 老人笑曰: “子視其下字.” 云: “此床以某年月日某造, 至某年月日爲費孝先所壞.” “成壞自有數, 子何以償爲?” 孝先知其異, 乃留師事之. 老人受以《易》軌革卦影之術, 前此未知有此學者. 後五六年, 孝先以致富. 今死矣) 明萬曆趙開美刊刻五卷本《中國歷代筆記英華》(北京: 京華出版社), 1998.10, 43쪽.

21) 衛紹生, 《中國古代占卜術》(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3.5, 268쪽.

파는 北宋 仁宗年間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北宋 때는 이 術數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술사는 그림과 시로 길흉을 알려주었다. 예를 들어 甲志 권13의 <狄僞卦影> 이야기를 보도록 하자.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적무양의 손자 적칭은 비효선이 준 분정서를 얻었는데 도시에서 난전을 열어서 짐을 봐주었다. 향림의 향백공은 은퇴 후 부관조로 임명되었는데 칭이 그를 위해 쾌영점을 봐주었다. 거대한 배는 맑은 강에 띄워 져고 배 안에는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 여자들이 있는데 배 위에는 깃발이 세워져 있고 시종들이 무척 많았다. 강기슭에는 긴 죽간이 세워져 있고 죽간 위에는 깃발이 세워져 있는데 바람을 맞아 펄럭거리고 있다. 讖詩는 “물가에는 깃대가 아슬아슬하게 서있고 남다른 은혜를 얻어 관작을 받는다. 조수가 돌아오는 물결은 거울 같이 투명한데 잠시 그대의 몸을 기탁해 보노라.” 향씨는 읽어 본 뒤 매우 기뻐서 자기가 반드시 다시 임금의 은혜를 받아 금의환향을 할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시가 나타내는 숨은 뜻을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루는 향씨는 궁궐에 가서 임금과 독대를 오랫동안 하였는데, 옆에서 서서 기록을 하는 중서사인 반자천이 앞에 와서 말하길 “시간이 늦었습니다. 황상께서는 쉬셔야 됩니다.”라고 하였다. 향씨는 공손하게 물러나왔지만 임금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아 말을 못하게 저지하기도 불편하였다. 그러나 반씨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다시 임금님이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해 이에 향씨는 물러나왔다. 이튿날 두 사람 모두 죄를 지었는데 임금은 그들 둘을 모두 사면하였으며 곧 지방으로 파천하였다. 향씨는 임금에게 상소를 적어 올려 학사 신분으로 평강지부를 지내게 됐다. 취임 후 3개월쯤 그는 사직하기를 청했는데 황제는 조서를 내려 그의 지위와 녹봉을 올려주고 귀향하게끔 하였다. 이때야 향씨는 비로서 쾌영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水畔幡竿”은 반자천을 가리키는 말이고 외지에 나가 군수를 하면서 임금의 은혜를 더욱 받는 것은 바로 “出守輔郡，上眷益厚”이다. “潮迴”는 조정에서 돌아가는 것이고 “波似鏡”은 평강을 비유하는 말이다. “聊以寄君身”이 말하는 것은 잠시 군중학사에 기거하며 최후에는 돌아가서 은퇴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狄武襄之孫僞，得費孝先分定書，賣卜於都市。薊林向伯共，自致仕起貳版曹，僞爲寫卦影，作乘巨舟泛澄江，舟中載歌舞婦女，上列旗幟，導從之屬

甚盛。岸側一長竿，竿首幡脚獵獵從風靡。詩云：“水畔幡竿險，分符得異恩。潮迴波似鏡，聊以寄君身。”向讀之甚喜，自以必復得謝，浮家泛宅而歸，但未盡曉。一日，上殿占對頗久，中書舍人潘子賤攝記注侍立，前呼曰：“日晏，恐動聖德。”向子謫退，而天語未終，向不爲止，潘還就班。少焉，復出其言如前，向乃趨下。明日各待罪，上兩平之，已而各丐外。向章再上，以學士知平江府。到官三月餘，力請謝事，優詔進秩以歸，始盡悟卦意：“水畔幡竿”，指潘公也。而出守輔郡，上眷益厚，所謂“分符得異恩”也。“潮迴”者，言自朝廷還。“波似鏡”者，平江也。“聊以寄君身”，謂姑寓郡齋，終當歸休耳。

위 이야기의 전개과정을 보면 적창의 패영법은 이야기 첫머리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효선의 술법을 그대로 전승했음이 분명한 것 같다. 비록 점괘를 보여주는 적창 역시 그 점괘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그의 점괘가 항백공의 앞날을 정확히 예측한 것은 물론 점괘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보아 軌革卦影의 초기 형태를 지키고 있다. 그 외에도 支甲 권8 <朱諷得子>와 補志 권18 <侯郎中>에서도 軌革卦影의 초기 형태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술법은 남송에 이르면 변화를 일으키는데 예를 들면 甲志 권10의 <紅象卦影>이 대표적인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간략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董良史가 廷試를 치룬 뒤 紅象道士를 청해서 자신의 성적을 알고 싶어 했다. 점괘가 나왔는데 그 시는 “검은 원숭이 긴 궁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걸어가서 선다. 아들을 묶고는 홀로 높이 나는데 중인이 따르지 못함을 탄식하노라.(黑猴挽長弓，走向天邊立。系子獨高飛，中人嗟莫及)”이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良史는 그 뜻을 알지 못했다. 점쟁이는 “일의 결과가 나와야지 비로소 이해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시험 결과가 나오자 張九成이 1등을 하였는데 張氏는 壬申年에 출생하여 원숭이띠로 음행으로는 검은색에 속하기에 검은 원숭이를 말하고 長弓을 합치면 張이 되기 때문에 바로 장구성을 암시하는 시구였던 것이다. 성적 순위로 董良史의 앞은 孫雄飛로 이른바 “系子高飛” 구절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仲并은 이른바 “中人莫及”으로 암시하고 있었으니 紅象道士의 신통함에 혀를 두를 정도다.

이 이야기에서도 홍상도인의 軌革卦影은 정확히 과거 합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냈다. 그의 讖詩에서 黑猴挽長弓은 오행법과 띠로 임신년생인 장생을 의미하고 거기다가 長弓이라는 글자 분리법으로 장원인 장생의 성을 가리키고 있으며 董良史의 전후에 자리한 孫氏와 仲氏 역시 한자의 자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각각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홍상도인이 펼친 점괘는 軌革卦影의 精髓에서 벗어난 형태를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생략하고 시를 이용하여 점괘를 암시하는 것이다. 비록 그의 軌革卦影 술법 역시 과거의 순위를 영험하게 알아맞추었지만 그가 펼친 술법은 軌革卦影의 원뜻에서 이미 벗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앞날의 길흉을 알기 위해 이 술법을 이용한 경우로는 甲志 권19 <沈持要登科>, 三志壬 권2 <楊抽馬卦影>, 丁志 권 <僧如勝>, 三壬 권3 <劉樞幹得法>, 三壬 권5 <大和劉尉>, 志補 권8 <張邦昌卦影> 등이 있다.

위에서 열거한 몇 개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 술수가 기타 술수처럼 직접적으로 사람의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또는 讖言으로 길흉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점을 보는 사람은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하거나 또는 일이 벌어진 후에야 그 점괘 속에 숨은 천기를 비로소 깨닫기 때문에 이 술수가 막 세상에 선보였을 때는 그 생소함과 신선함으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지만 그 후에는 그 난해함으로 점점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운명에 처한다.<sup>22)</sup>

## 2. 算命術

사람의 생년월일시에 따라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는 술수로, 南北朝에

22) 이 술수에 관한 문헌으로는 《宋史·藝文志》五行類의 《軌革秘寶》, 《軌革指迷照膽訣》, 《軌革照膽訣》과 蓍龜類에 기록된 《軌革金庭玉鑒》, 《軌革傳道錄》 등이 있는데, 이 모두 전하지 않으며 宋代 이후에는 이와 관련된 기록이 적게 보인다.

시작되었으나 唐代의 발전기를 거쳐 宋代에 이르러서는 성행하였다.<sup>23)</sup> 특히 宋代 徐子平이 이 術數를 더욱 완비시킨 이후로 이 술수는 더욱 크나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고 命에 관련된 저서들이 끊임없이 세간에 나오게 되었으며 많은 術士들이 민간에서 활약하게 되었다.

《夷堅志》에서는 丁志 권19 <史言命術>, 支癸 권10 <王資道及第>, 三志辛 권1 <山門寺僧>, 三志辛 권4 <尹憲文命術> 등 이야기에서 算命術이 사용되는 예를 볼 수 있는데, 그 중 支戊 권3 <鐵掃帚> 이야기를 살펴보자. 이 이야기에서 짐을 치러 간 사람은 앞에서 열거한 이야기와는 달리 지식인이 아닌 일반 서민이지만 자신의 운명에 대한 일반 서민의 관심을 엿볼 수 있으며 아이러니한 결말이 무척 흥미로운 이야기이기에 여기에서 소개해 본다. 이 이야기에서 술사는 짐을 보러 온 사람의 길흉을 잘 알아맞힌다. 술사는 짐 보러 온 사람에게 말하길 “그대의 운수가 매우 나쁘네 내년 초 봄을 가장 꺼려야 되오. 아마도 범죄를 저질러 벌을 받을 수 있는 재앙이 있을 것인데 만약 한 달 동안 나오지 않을 수 있어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다면 거의 액운을 면할 수도 있소.(君星數甚惡, 最忌明年初春, 恐蹈刑戮之禍. 若能一月不出, 勿與人接庶可或免)”라고 하였다. 짐을 보러 간 사람은 그 말을 듣고는 불쾌했지만 술사의 말대로 참고 지냈는데 그동안 어떤 변고도 일어나지 않아 결국 화를 내며 그 점쟁이에게 따지러 갔다. 하지만 술사는 자신의 예측이 맞다며 주장하자 짐 보러 간 사람은 화를 이기지 못하고 술사를 죽여 버리고 만다. 그 결과 짐 보러 간 사람은 술사의 예언대로 刑戮之禍를 당해 살인죄로 유배를 가게 된다. 이 이야기는 술사의 뛰어난 예측을 통해 인간의 정해진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줘 독자로 하여금 운명의 지배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인간의 비극성과 무력함을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타인

23) 算命術이 전국시대 鬼谷子에게서 기원했다는 설이 있지만, 呂思勉의 고증에 의하면 남북조에 와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呂思勉, 《兩晉南北朝史-宗教》(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3. 郭春梅、張慶捷, 《世俗迷信與中國社會》(北京: 宗教文化出版社), 2001.5, 201 쪽에서 재인용.

의 미래의 운명을 손바닥 보듯이 꿰뚫는 술사가 자신의 운명은 채 짐작하지 못한 채 자신의 비명횡사로 타인의 예고된 운명을 완성시키는 결말로 이야기가 마무리됨으로서 해학적인 재미를 배가시킴과 동시에 운명의 여러 가지 다양한 면모를 사교하게끔 해준다.<sup>24)</sup>

命理學에 따르면 운명은 기본적으로 생년월일시에 따라 정해지므로 사주팔자가 같으면 그 운명 역시 같게 된다. 그러나 같은 운명에서도 조금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支戊 권8 <黃戴二士>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황상과 그 친구인 대송은 모두 소흥 을묘년 모일 인시생인데, 어려서부터 절친했으며 장성해서는 시문을 공부하였는데 마을에 명성이 자자했다. 두 사람은 명리학에 능한 술사를 불러 점을 봤는데 그 술사의 점 풀이는 다음과 같았다. “두 분의 명은 대략 비슷하지만 황군은 正寅時이고 대군은 寅時의 기운이 얇은데 마땅히 축시 끝이라 여겨야 하니 대군의 성공은 반드시 황군보다는 뒤일 것입니다.” 술사는 그 후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길: “두 사람의 품격은 모두 낮은데 황씨가 비록 낮다 하더라도 역시 말할 정도로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 후에 대송은 나이 오십이 되지도 못한 채 공명을 이루지도 못하고 죽어 버렸고, 황상은 과도한 음주로 풍습병에 걸려 절음발이가 된 후 정시에 참가하여 다행히 4갑에 올랐지만 결국 참선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뒤 병에 걸리고 그 뒤 58세에 생을 마감하였다. 황씨는 등과하지 못한 채 일찍 세상을 뜬 대송과는 달리 등과한 후 더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 둘의 운명은 술사의 예언처럼 별반 좋지 못하니 그들의 이야기 또한 정해진 운명의 틀을

24) 臨安術士, 失其姓名, 常著道服, 標榜曰鐵掃. 箒設肆于執政府牆下, 從而卜筮者多市廛造力. 雖所言有驗, 然不爲士大夫所稱. 淳熙甲辰冬季, 一細民來問命, 告之曰: “君星數甚惡, 最忌明年初春, 恐蹈刑戮之禍. 若能一月不出, 勿與人接, 庶可或免.” 民雖不懌, 而以所戒深切, 於是如其言. 至晦日, 不能忍閑, 徑往責之曰: “汝道我正月大災, 今日已到三十日, 又不曾分毫越法, 何由觸禍?” 術士曰: “我一時間說了, 亦自忘記, 容再爲推測.” 及布局纔成, 復云: “今日尙是正月, 猶可慮也. 必須打殺人.” 民忿恚, 詆其誕妄, 相與爭詈不已, 不勝忿曰: “我只打殺汝, 以驗汝術.” 奮身起箒之, 不覺揚其脅, 立死. 遂受擒, 而得減死黥配. 此等事傳記中或有之.

벗어날 수는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sup>25)</sup>

### 3. 響卜

響卜 또는 響卜 이라 불리는데 어떤 사람의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의 첫 번째 소리로 운명을 짐치는 점술법이다. 이 점술술은 支景 권0 < 婆惜響卜 >에 보이는데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括倉人으로 자가 叔存인 何湛이라는 사람은 청원왕의 증손이다. 淳熙 丁未年에 省詩를 보러 가서 삼교 여관에 머물렀다. 합격자 방이 붙는 날 저녁에 소식을 알아보려고 하인을 보냈지만 오래도록 오지 않아 근심하여 동학들을 이끌고 다리위에 올라 향복을 듣기로 했다. 발걸음을 멈추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강가에 있던 부인이 “婆惜你得你得”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는 오나라 사람들이 화를 낼 때 서로 욕하는 말로 당시 사람들이 ‘受記’라고 하는 것으로 길조는 아니었다. 하지만 湛은 무척 좋아하며 빨리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길 “나를 축하해줘도 된다.”라고 하니 동학들이 “자네는 향복을 일부러 들으려고 하여 연속 得자가 나왔으니 의심할 필요가 있겠는가.”하니 湛이 말하길 “그뿐만 아니라 나의 어릴 적 이름이 바로 파석이다.”라고 하였다. 모두들 기뻐하며 막 술을 사서 마시려고 하였는데 중복이 도착했다. 과연 앞 순위로 과거 시험에 합격하였다. (括蒼何湛叔存, 清源王曾孫也. 淳熙丁未赴省試, 館於三橋旅邸. 揭榜之夕, 遣僕探候, 久而不至, 有憂色, 因率同輩登橋聽響卜. 駐足未定, 聞河畔婦人叫呼曰: “婆惜你得你得.” 蓋吳人愠怒欲行打罵之詞, 俗謂之受記, 非吉兆也. 湛獨

25) 莆田士人黃裳, 字伯華, 與其友戴松, 皆以紹興乙卯某月某日寅時生, 並居郡中. 少相善, 既壯爲學, 皆著稱. 有客工論命, 二士共邀之, 使分別優劣. 客歷問家世平生, 然後斷之曰: “二命大略相似, 但黃君是正寅時, 戴君得寅氣淺, 當是丑末, 其發跡當在後.” 退而告人曰: “品格皆絕低, 黃雖勝之, 亦不足道也.” 既而戴但預薦, 年不滿五十, 不第而卒. 黃入太學, 登合選. 淳熙壬寅得免省, 還闕守年, 聞戴死懼甚. 福唐黃司業定爲潮陽守, 往訪之, 飲酒無算, 中夜感風濕之疾. 而甲辰廷試期已迫, 強昇病詣郡, 鄉人爲賂邏卒及閹者, 容其跛曳, 三四人掖之造廷, 及唱名, 亦如之. 雖幸列於四甲, 竟不可參選, 乃求岳祠以歸. 歲滿無痊意, 凡三任而終, 年止五十八. 是雖登科食, 祿視戴布衣早沒爲不侔, 然一紀殘廢, 與死爲隣, 眞不足道也.

喜, 巫還曰: “可賀我矣.” 同輩曰: “叔存作意聽響卜, 而連四得字, 夫復何疑”  
湛曰: “不特此也, 吾少名正爲婆惜.” 衆皆喜, 方買酒欲飲而僕至. 果中前列.)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일들이 잘 짜인 운명의 극본대로 진행되기 전에 반드시 그 징조가 나타난다고 여기기에 이러한 황당무계한 방법으로 과거시험 결과를 기다리기 전의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아서는 “婆惜你得你得” 중 그 어떠한 글자도 何湛이 과거에 합격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어찌 보면 이야기의 記述者의 말처럼 그것은 吉兆가 아닌 凶兆로 여겨 질만도 하지만 주인공은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자신과의 연관성을 찾아내고 자신이 과거에 붙을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데 실제로도 그런 터무니없는 예측이 신기하게도 맞아 떨어진다.

이처럼 어떤 장소를 정한 뒤 무심결에 들려오는 소리로 짐을 치는 방법이 민간에 성행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점복술은 잠복술에 속하는 것으로 容肇祖 <占卜의源流>에 나오는 龜卦, 響卜, 또는 鏡聽이라는 것이 이 부류에 속한다.<sup>26)</sup> 그중에서 鏡聽이라는 점술법은 王建, 李廓의 시에도 보이는데 그 시들을 통해서 이 점술이 어떻게 시술되는지 알 수 있다.<sup>27)</sup> 그렇

26) 容肇祖의 <占卜의源流>에서 林紹周 《三台便覽通書》와 秦嘉謨 《月令粹編》 등의 서적을 인용하여 이 부류의 술법을 소개하였다. 그는 響卜이 본래 귀곡자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하였고, 원단 저녁 또는 초하루 밤에만 시술되며 시술 시 먼저 부뚜막 신에게 기도한 후 물에 국자를 둔 뒤 국자가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거울을 품고 밖으로 나가면서 주위 사람의 말을 몰래 듣는다고 하였다. 容肇祖, 앞의 논문, 85-86쪽

27) 王建과 李廓 두 사람 모두 <鏡聽詞>가 있는데 王建의 시는 다음과 같다. “重重摩挲嫁時鏡, 遠行憑鏡聽. 回身不遣別人知, 人意丁寧鏡神聖. 懷中收拾雙錦帶, 恐畏街頭見驚怪. 嗟下堂階, 獨前來跪拜. 出門願不聞悲哀, 郎在任郎回未回. 月明地上人過盡, 好語多同皆道來. 卷帷喜不定, 與郎裁衣失翻正. 可中三日得相見, 錦囊磨鏡面.” 이 시는 《全唐詩》권29(北京: 中華書局), 1960, 338쪽에 보인다. 李廓 시의 내용은 “匣中取鏡辭竈王, 羅衣掩盡明月光. 昔時長著照容色, 今夜潛將聽消息. 門前地黑人來稀, 無人錯道朝夕歸. 更深弱體冷如鐵, 繡帶菱花懷裏熱. 銅片銅片如有靈, 願照得見行人千里形.”으로 이 역시 《全唐詩》권 47, 5457쪽에 보인다.

지만 《夷堅志》에서 보이는 嚮卜이 당대의 조괘나 경청과는 시술 방법상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소개한 이야기와 支乙 권2 <羅春伯>의 이야기로 보건대, 嚮卜은 시간상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또한 아궁이신 앞에서 끓어앉아 기도할 필요도 없으며 국자나 거울 같은 도구도 사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만약에 점을 치려는 사람이 많다면 <羅春伯>의 경우처럼 순서를 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나춘백은 과거 시험 치러 가기 전에 친구와 嚮卜 점을 치러가서는 그 친구와 약속하길 처음으로 들리는 소리는 친구의 점괘이며 그 다음이 자신의 것이라고 약속하는데(未試前, 與一友同行占嚮卜, 約以首語爲友證, 次者爲羅證), 이 처럼 첫 소리는 누구의 점괘이며 두 번째 소리는 누구의 점괘인지 미리 정하면 어느 징조가 자신의 운명을 암시하는 것인지 헷갈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 4. 拆字

拆字는 破字, 測字, 相字 라고도 칭하는데 사람이 적은 글자 하나로 그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술수이다. 《隋書·經籍志》에 이미 拆字의 전문저서가 수록되어 있지만 隋唐代에는 다른 술수가 더욱 성행하여 그다지 민간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북송 휘종년간에 謝石이 이 술수로 이름을 떨친 이후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sup>28)</sup> 拆字로 이름을 떨친 謝石의 일화는 志補 권19에 실린 <謝石拆字>에 잘 드러나는데, 그 이야기에서 사석은 글자 하나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의 죽을 날짜를 알아맞히는 등, 자신의 신기한 능력을 유감없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拆字로 친함을 찌렁찌렁하게 울린 謝石을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다는 격으로 그를 혼쫓나게 하는 자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같은 권 <蓬州樵夫>에 보이는 道姑이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사석이 단양을 유람할 때 한명의

28) 衛紹生, 앞의 책, 228쪽.

道姑가 큰 부채를 손에 들고 거리를 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에 손에 있던 부채에는 拆字如神이라고 4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다. 이에 사석은 이 술수로 자신을 이길 수는 없을 거라고 여기고는 石자를 적어 그녀에게 점을 쳐달라고 했다. 道姑는 글자를 본 뒤 “피를 만나면 망하고 줄을 만나면 부서진다.(逢皮則破, 遇卒則碎)”라고 말했는데, 사석은 점괘를 보고 기분이 나빴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말을 매우 신복했다. 후에 사석이 利路尉가 되었는데 일찍이 무장인 왕진이 자신의 이름인 진자로 점을 본 적 있는데 사석은 그때 “집이 가려고 하니 만약에 일을 도모하려고 하면 반드시 망한다.(家欲走, 若圖事必敗)”라고 한 적이 있었다. 그 후 왕진이 반역을 도모하였는데 그의 유모가 밀고를 하여 잡히게 되었다. 사석 역시 왕진의 앞날을 알고서도 고발하지 않은 죄로 軍적을 말소 당하고 墨刑을 당한 채 유배를 가게 된다. 사석이 왕진의 고향 사람들에게 물어 보니 그는 南皮 사람으로 卒伍에서 승진해서 장군이 되었다고 하였다. 사석은 그제야 자신의 앞날이 옛날 道姑가 예언한 대로 “逢皮則破, 遇卒則碎”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외에도 <朱安國相字>와 再補 <謝石拆字>의 이야기에서 拆字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앞 이야기에 나오는 주안국 역시 예언한 것들이 후에 모두 맞아 떨어지는 신기한 재주를 갖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 5. 相聲

원래 사람의 음성으로 그 사람의 길흉귀천을 판단하는 술수는 그 기원이 매우 이르다. 《太平廣記》 권216 《三國典略》에서 인용한 <吳中察聲者>에서도 보이는데 이 이야기는 後魏末 눈이 멀지만 소리를 잘 들어 상대방의 말을 듣고는 그 사람의 운명을 맞히는 오나라 선비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宋代에 와서는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평소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물의 소리를 통해서도 사람의 길흉화복을 점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른 사람이 있게 된다. 支庚 권2 <余聽聲>의 余山人이 대표적인 인물로, 이 이야기에서 여산인은 북소리를 듣고 李熙仲 집안의 두 명의 자제에게 경사가 있을 것임을 예언하였는데 과연 그해 그 집안의 두 자제가 추천을 받게 되는 경사가 있게 된다.(三衢余山人, 善相氣色, 又工聽器物聲, 嘗至婺源邑士李熙仲家, 試其術, 使立戶外而自登廊上鼓梯, 執兩椎敲擊數四, 乃呼入問之曰“鼓有雙聲, 當應兩子弟喜慶事.” 是歲淳熙十三年及秋試二子皆薦名) 그 외에도 甲志 권9에 실려 있는 <俞翁相人>의 주인공 유옹 역시 이 술수에 능한 이로, 그는 물 흐르는 소리, 악기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로 사람의 운명을 추측하는 재주를 갖고 있는 걸로 묘사되고 있다.

이상으로 宋代에 대표적인 占卜術數를 살펴보았다. 그 외의 독특한 술법으로는 乙志 권18 <張淡道人>에 나오는 軌析算步법과 支庚 권2 <方大年星禽>의 禽課 등이 있다.

#### IV. 맺는 말

일상적으로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 未知를 알아내는 과정을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살고 있다. 고대로부터 인간의 운명은 신에 의해 결정되어 지거나 그들에 의해서 관리되어 진다고 믿어 왔기에 각종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 神意를 추측하였다. 신의 노여움을 사서 탈이 나지 않기 위해서도 신의 뜻을 알아야 하지만, 신의 뜻을 알아서 행운을 가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신과 교류하는 방법은 인간세계에서 부단히 행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신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다른 預兆나 암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는 의식구조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신과의 의사소통을 진행하여야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인간들은 그들이 알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夷堅志》의 무수한 이야기들은 어떻게 초자연

적 힘을 빌려 자신들의 앞날과 관계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는지를 서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의 근본은 바로 운명의 주재자이자 관리자인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함께 인간의 숭배대상인 그것들과 교류하기 위한 수단인 여러 가지 무속 활동의 작용에 대한 맹신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운명의 주재자 또는 관리자가 인간 자신이 아닌 바로 초자연적 존재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그 존재의 心中 또는 그 존재의 운행 법칙을 파악하기 위한 占卜 같은 각종 방법들이 강구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생활의 모든 현상은 어떤 힘에 의해 변화한다고 믿고,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운명에 귀의하는 것이 운명적 인생관이고 이 운명관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운명의 근거가 어디, 어떤 것에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방법이 고래로부터 널리 행해진 무속행위인 것이다.

민간신앙의 주된 내용이기도 한 무속 활동은 宋代에 들어와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 내었다. 시대 분위기에 편승하듯 豫測類 무속의 종류도 前代보다 더욱 많아지고 새로운 術數도 생겨났으며 그것을 職業으로 삼아 활동하는 사람들도 증가하였다. 게다가 陳搏, 錢若水, 邵雍같은 송대의 유명한 理學家, 文人隱士들도 역학에 능하여 직접 占卜書籍을 펴낼 뿐 아니라 심지어 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梅花易術’같은 새로운 역술을 만들어 내는 등 占卜術이 문인계층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당시에 성행한 術數로는 기존의 筮占, 相術, 風水등의 術數외에도 卦影 같은 術數가 새로 생기거나 算命, 響卜 등의 술수가 민간에서 더욱 유행하였는데, 그것들의 민간에서의 영향력은 宋代 인쇄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서적들이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더욱 더 넓혀지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보는 占卜典籍의 대부분이 宋代 이후에 편찬된 것인데, 《宋史·藝文志》를 살펴보면 宋代의 占卜書籍이 唐代보다 많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전대에 비해 크게 성장을 한 민간 무속 신앙은 《夷堅志》에 나타나는 각종 술수와 무속 활동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 바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필기 작품의 공통적인 특색으로 당시의 시대적 풍조를 반영하듯 宋代 士人들은 유달리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였다. 비록 宋代

이전의 필기소설 중에서도 노신이 《中國小說史略》에서 말한 ‘變怪讖應之談’의 素材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 대다수 이야기들은 皇族, 貴族, 名臣, 高士 등 상류층 인사들과 관계된 것이었다. 그에 비해, 이러한 讖應迷信, 占卜, 徵兆 등의 이야기들이 일반 士人들의 평사 시 교류 중에 흔히 접하면서도 빠지지 않는 화두 거리가 되고 士인들이 주체가 된 것은 아마도 宋代 士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색일 것이다. 비록 그 이야기의 진위여부에 대해 어떤 이는 현실에서 있었던 사실로 인식하거나 어떤 이는 그저 담소할 수 있는 이야기의 소재 거리로 생각하는 사고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런 상황이 宋代 필기 중에 두드러지게 발견되고 있는 것은 그 전대에 볼 수 없었던 바이다.

물론, 下層의 민중뿐만 아니라 士인들의 믿음까지 획득한 민간 무속 신앙은 그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仕途와 功名을 위해 주로 服務를 해야 했다. 비록 특정 이야기에 치우친 이와 같은 현상은 대다수 이야기 전술자의 신분적인 특성 상 필연적인 결과지만 이를 통해 그 당시 치열했던 과거 경쟁률 속에서 士인들이 겪어야 했던 초조하고 절박했던 심리와 의식 구조를 살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중국의 사회구조는 宋代에 들어오면서 재편성되었는데, 良賤制의 폐지로 인해 庶民의 수가 팽창하였으며 동시에 서민의식 또한 향상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宋朝 文治主義 정책의 확산과 지역사회에서 敎學施設의 발달로 면학분위기 조성, 인쇄술의 발달에 따른 서적보급의 확대로 독서계층이 빠른 속도로 증가되어, 남송에 이르면 성인 남자들 가운데 解試 응시자의 비율이 무려 2.5%까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수치는 明末의 生員 비율 이상으로 이것은 당시 과거를 통해 관료가 되고자 하는 지식인들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29)</sup> 이처럼 과거 경쟁률은 높아만 갔고 그것과 비례를 이루듯 그 당시 士인들이 겪었던 앞날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과 초조함도 더욱 높아

29) 河元洙, <宋代士大夫論>, 《講座中國史3-士大夫社會와 蒙古帝國》(서울: 지식산업사), 1989, 79쪽.

만 갔고, 그리고 과열로 치닫는 경쟁률 속에서 경제력마저 미비한 대다수 布衣의 독서인이 감당해야만 하는 열악한 환경은 그들로 하여금 과거시험의 성패는 미리 정해진 운명에 달려 있다고 믿게 하였고 그리하여 운명을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각종 술수와 무속 행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으며 운명의 주재자를 더욱 더 숭상하고 따르게 하였다.

과거제도가 宋代에 들어와 비로소 나타난 관리 선발제도가 아닌 것은 주지된 사실이다. 하지만 송대에 들어와 과거제도가 관리를 선발하는 주요 제도로 정착되었으며 唐代에 비해 신분상의 제한을 축소시키고<sup>30)</sup> 과거 응시자를 익명화시키는 封彌法과 騰錄法을 제도화시켜 과거의 공정성 제고에 대한 개방성으로 인한 폭넓은 사회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과거 급제자의 출신 성분을 보더라도 唐代에는 기존의 관료계층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唐 後期“(僖宗)咸通·乾符 시기에 豪貴들이 등용문의 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平人 출신의 藝士 열 명이 공략하고도 아홉은 실패하였다”<sup>31)</sup>라고 할 정도로 과거는 일부 특권 계층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에 비해 宋代의 과거 급제자들 가운데서, 본인의 앞 3대 이내에 관료를 전혀 배출해내지 못했던 비관료가문 출신이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한 사실로 이것은 신분 지위에 관계없이 과거를 통해 관료로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sup>32)</sup>

이처럼 宋代에 들어와 보다 폭넓은 사회계층들이 과거에 응시하고 과거를 지향하는 지식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남으로써 그 결과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송대 士人들은 解試 단계에서부터 前代의 독서인들보다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해야 했으며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관직에의 진출은 더욱 이

30) 唐代에는 工商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응시를 제한하는 등 入仕者의 신분제 제한을 두고 있었다. 唐代 科擧 응시 자격과 관련해서 許友根 <唐代進士科擧子資格研究>, 《人文雜誌》, 2002.3 참고

31) (清)董誥等編, 《全唐史》권825, (北京 中華書局), 1996, <蒲山靈岩寺碑銘>, 8700쪽.

32) 河元洙, 앞의 논문, 77-78쪽.

렵게만 느껴졌다. 이런 이유로 宋代 士人들은 종교적 장소인 祠廟를 그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자주 참배하였고 각종 예측형 무속 행위를 통해 자신의 앞날을 추측하는데 열중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夷堅志》의 지역 곳곳마다 세워진 무수한 民間祠廟와 각종 術數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자신의 앞날의 각가지 정보를 알기 위해 일부러 祠廟를 찾아와 거기서 신과의 교류를 주동적으로 전개하거나 神을 강림하게 하는 것은 그 전 시기에는 보기 드문 현상으로 이것은 송대 민간신앙의 한 특색이자 민간신앙의 성행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宋代 士人들의 운명에 대한 관념이 더욱 더 심화되었고 운명에 대한 탐구 방식이 대중화되고 보편화 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런 까닭으로 宋代에 들어와 民間祠廟의 신령에게 국가적으로 작위를 내리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할 수 있겠다.

### <參考文獻>

- 洪邁, 《夷堅志》, 臺灣: 明文書局本
- 郭春梅、張慶捷, 《世俗迷信與中國社會》,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2001.5
- 衛紹生, 《中國古代占卜術》,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3.5
- 劉黎明, 《宋代民間巫俗研究》, 成都: 巴蜀書社, 2004.3
- 袁陽, 박미라역, 《중국의 종교문화》, 서울 길 2000
- 朱瑞熙, 《遼宋西夏金社會生活史》, 북경: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998.8
- (美)韓森著, 包偉民譯, 《變遷之神-南宋時期的民間信仰》,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1999
- 許地山, 《扶箕迷信的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1999
- 黃正建, 《敦煌占卜文書與唐五代占卜研究》, 北京: 學苑出版社, 2001.5
- 金相範, <唐代民間祠廟信仰 연구의 回顧와 展望>, 《中國史研究》14, 2001.8
- 박지현, <중국 민간 신앙 속에서 神 되가 《太平廣記》 神部 이야기에 나

타나는 人物神 분석>, 《中國學報》51, 2005.6

楊曉紅, <宋代占卜與宋代社會>, 《四川師範大學學報社科版》29:3, 2002.5

容肇祖, <占卜的源流>, 《歷史語言研究所集刊》1, 1928

鄭志明, <關於民間信仰·民間宗教與新興宗教之我見>, 《文史哲》, 2006.1

河元洙, <宋代士大夫論>, 《講座中國史3-士大夫社會 와 蒙古帝國》, 1989

### <中文提要>

民間原始信仰的長期傳承是中國傳統文化的一個重要特點，宋代民間信仰仍然廣泛地流行。民間信仰不但被社會下層人民所崇信，文化程度較高的讀書人也相當熱衷於此，甚至連社會上層人士也參與其中。

因此本論文試圖透過南宋洪邁《夷堅志》中顯現民間信仰的故事，考察士人爲了推測預定的命運，如何使用預測型巫術與神明進行交流，並且探討預測型巫術呈現出來的宋代民間信仰的特色。

通過本論文的討論，我們就發現到士人階層特別關注的是預卜未來仕途的浮沉。他們利用多種巫俗行爲探測神意，試圖掌握到關於自己未來命運的種種資訊。在宋代民間信仰活動中，比較具有特色的是，宋人在祠廟與神明進行交流，特別是士人爲了提早得知與考試有關的資訊，例如考試題目、名次、考試結果等，而專程前往祠廟向神明祈夢，這樣的現象在唐代作品中較少見。此外，有些士人親自請紫姑神降臨，詢問有關於科舉的事項。另外，士人還透過各式各樣的術數，窺知自己前定的命運，而在其使用的方法中，足以代表宋代的有軌革卦影、算命、響卜、拆字以及相聲。

宋代士人之所以如此熱衷於此，不僅是因爲仕途浮沉前定的觀念已深入當時士人之心，而且又因爲科舉制度在宋代成爲選拔人才的主要方法。宋朝的文教風氣興盛，讀書人數衆多，競爭激烈。因此想要透過科舉考試獲取成功的士人，即使通過長時間的準備，也不一定能夠錄取，因而不免將科舉考試的成敗歸之於命運。各種考試的應考士人，都相信科舉的結果早已由命運所決定，因

此他們爲了要儘早得知前程，宋代士人比前代人更積極地，更主動地用預測類巫術行爲，窺探命運。

주제어: 夷堅志, 宋代士人, 預測型巫術, 命運

K C I